

## 과학교육사업에서의 혁명적전환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

조 원 국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공화국의 존엄과 비약의 기상을 높이 떨쳐나가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힘차게 벌리고있다.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문제는 과학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하여서는 강국건설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과 교육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명맥을 창창하게 이어나가는 만년대계의 사업입니다.》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지식경제시대의 발전추세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를 깊이 통찰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는것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로 나서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과학기술전선은 당과 혁명을 옹위하고 우리의 위업을 전진시키는데서 제일척후전선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속에서 세계적인 과학연구성과, 실리가 큰 새 기술의 발명과 도입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되어야 경제활성화와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가 열리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가 앞당겨지게 된다.

지금 우리앞에는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방대한 과업이 나르고 있다. 이 방대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결정적으로 과학기술에 의거하고 인재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나라의 과학기술전선을 믿음직하게 지키는 인재대군, 과학자, 기술자대군은 결코 저절로 마련되는것이 아니다. 인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것이 아니라 교육의 산아이다.

과학과 교육은 국가건설의 기초이며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자체의 과학기술력과 교육수준이 높아야 강대한 국가를 건설할수 있고 자주성도 견지할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두뇌에서 생산활성화의 묘술이 나오며 교원들의 자질과 책임성에 의하여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인재들이 자라난다.

나라의 문명은 교육수준에 의하여 담보되며 우리 국가의 미래는 교육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자체의 과학기술력이 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아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절

실히 필요한 에너기와 원료,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나라의 자립적경제구조를 완비하며 인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다그쳐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경제, 지식경제를 일떠세우며 전체 인민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높이에서 향유할수 있는 물질문화적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수 있다.

교육기관들은 그자체가 과학연구의 터전인 동시에 각 분야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원종장이다. 교육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과학과 기술로 조국을 빛내이고 우리 혁명의 전진을 앞장에서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게 된다. 교육을 떠난 과학기술인재를 생각할수 없듯이 교육의 발전을 떠난 혁명의 전진을 론의할수 없다. 교육의 질적높이가 교정을 나서는 인재들의 자질을 결정하며 교육의 발전속도이자 사회주의강국건설속도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대변혁, 대비약이 일어나고있다.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있으며 첨단돌파의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발전하는 현실이 제기하는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절실한 수요는 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서만 충족시킬수 있다.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는 우리 혁명에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키워내자면 교육부문에서 말그대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구태의연하게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미미한 발전이 아니라 단번에 세계를 앞서나가는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우리 교육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을 다해나갈수 있다.

현실은 강대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부단히 증대시키며 그러한 과학기술력을 마련하는데서 주역을 맡고있는 교육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는것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로 나서는 것은 다음으로 나라를 지속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기때문이다.

오늘 당의 령도밑에 우리 세대가 추진하는 강대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후대들에게 통성변영하는 나라를 물려주어 자자손손 세상에 부럼없는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끊임없이 변영하는 나라를 후대들에게 물려주자면 나라를 지속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에 자체의 막강한 과학기술력과 높은 교육수준은 나라를 지속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확고한 담보로 된다.

끊임없이 소모되고 날이 감에 따라 고갈되는 자연부원과는 달리 지식자원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보다 풍부한 지식자원을 낳는 밑천으로 되며 지식경제의 생산력을 증대시켜 사회발전을 더욱 추동한다. 이것은 과학교육부문 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나라의 지식자원, 과학기술적잠재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무궁변영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교육사업은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갈 믿음직한 계승자,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교육발전을 떠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대할수 없고 과학의 안받침이 없이는 교육의 전진을 기대할수 없다. 든든한 뿌리가 있어야 거목이 자랄수 있듯이 과학과 교육이 급속히 발전하여야 경제강국의 밝은 래일과 조국의 만년대계를 담보할수 있다.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도

과학교육의 초석우에 마련되며 자립경제의 상승궤도도 그 토대우에 이룩된다.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길도 바로 과학교육의 발전에 있다.

교육발전을 떠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대할수 없고 과학의 안받침이 없이는 교육의 전진을 기대할수 없다.

과학과 교육이 급속히 발전하여야 경제강국의 밝은 래일과 조국의 만년대계를 담보할수 있다.

과학교육중시에 나라와 민족의 끊임없는 통성변영이 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

당과 혁명을 옹위하고 우리의 위업을 전진시키는 과학기술전선의 제일척후전선의 주력군인 과학자, 기술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개척자, 선도자로서의 사명에 맞게 피타는 탐구와 노력으로 우리 혁명의 전면적부흥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통성변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누리에 찬란히 빛내여나가야 한다.

실마리어 과학교육사업, 혁명적전환